

137-84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9-3 인산빌딩 302호 070-8658-1848, F 02-581-0339, <http://health.re.kr>

여유는 '계획'하고 만드는 것

곧 추석 연휴입니다. 예년에 비해 유난히 긴 연휴라서 그런지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합니다. 여름 휴가 지나고 폭풍처럼 밀려오던 일들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 한 선배로부터 '여유는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여유'가 찾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우연히 여유로운 상황이 오더라도 즐기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2010년이 100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연말이 되어갈수록 점점 더 바빠지게 될 텐데 나름대로 여유를 계획해 봐야겠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편안하고 즐겁게 추석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PHI 칼럼

일단, 거품을 걷어내고!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요즘 ‘대세’인 양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U-health의 정체를 알아보자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활동가들과 저희 연구소 식구들 몇몇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운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견 수많은 갈래들 중 하나의 기술이자 수단에 불과할 뿐,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든가 만성질환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그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간 매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한들,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제대로 활용할 원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저 비싼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장신구

하나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 전성과 효과성, 이에 덧붙여 비용-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거품처럼 일어나는 ‘유행’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견 비단 보건 의료 영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각 기업들마다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한다고 난리고, 어떤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게 그 비싼 스마트폰을 지급해 주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가져올 업무나 학습에서의 효과성, 혹은 노동 강도와 노동 감시 심화, 개인·조직 차원의 비용-효과들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거품의 백미는 각 대학의 영어 강의를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학과목을, 수업의 심도(深度)를 해쳐가면서, 더구나 교수와 학생 모두 괴로워하면서 영어로 강의하는 한국적 상황을 ‘거품’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러다이트’들도 아니고 ‘쇄국주의자’도 아닙니다.

다만 근거 없는 유행에 휩쓸려, 주객이 전도되고 수단이 목표를 좌우하는 기괴한 상황은 막아야겠다는 소박한 합리주의자일 뿐입니다.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술의 진보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u-health나 HT (health technology, 보건기술)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첨단기술 = 만능해결사’라는 그릇된 아우라 속에서 목표에 이르는 그저 한 가지의 수단을 넘어서는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 유헬스 흐름도



모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떻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거품을 걷어내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끝)

PHI 알림

■ 회원 초청 특별 세미나

【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상상한다 】

모두가 건강한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 답은 ‘진보의 상상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변영주 감독을 모시고 좋은 세상을 꿈꾸는 영화의 상상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변영주 감독

작품소개 :

- 작은 폴에도 이름 있으니
- 우리네 아이들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낮은 숨소리
- 숨결
- 밀애
- 송환
- 발레교습소 등.

- 일 시 :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 5시30분

(※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장충동 만해 NGO 센터 2층 대강당

- 참가자격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 참가비 : 무료

- 참가신청 : [e-mail] phprc@hanmail.net

[phone] 070-8658-1848

- ※ 행사 준비를 위해, 반드시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좌 안내

【 대안보건의료체계를 꿈꾸다 】

한국 보건의료의 한계와 문제를 풀어낼 대안 보건의료체계는 가능할까요?

국내외에서 시도되는 대안보건의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보건의료, 함께 공부하고 상상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0년 9월 30일(목) ~ 11월 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 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옛 보건대학원 건물 108호

- 수강료 : 일반 15만원 / 학생, 시민단체 상근자는 12만원 / 연구소 회원 10만원, 특별회원 무료
- 신 청 : 이메일(phprc@hanmaill.net)로 이름, 소속,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함께 수강신청

구분	월일	강의 제목	강사
1강	9월 30일 (목)	보건의료의 대안을 찾아서	김창엽 (연구소 소장)
2강		영국 NHS의 경험에서 배운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기자)
3강	10월 7일 (목)	미국과 캐나다, 같은 뿌리 다른 현실	정혜주 (고려대 교수)
4강	10월 14일 (목)	생활협동조합, 보건의료서비스에 도전하다	최혁진 (원주의료생협)
5강	10월 21일 (목)	건강도시는 대안보건의료가 될 수 있을까?	정백근 (경상대학교 교수)
6강	10월 28일 (목)	노동자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임준 (가천의대 교수)
7강	11월 4일 (목)	공공성과 공공의료	김창엽 (연구소 소장)

PHI 동향

■ 연구소 제10차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연구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경애 이사장님과 김창엽 소장님, 그리고 이상욱 이사님, 김정희 이사님과 김창보 연구실장님, 김명희 센터장님이 참여했습니다. (문성현 이사님과 강주성 이사님은 사정상 불참하고 권한 위임).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운영과 활동을 보고하고 하반기 연구소 활동계획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활동으로는 ▲대안 보건의료체계 기획 강좌 개최, ▲지역건강불평등과 어린이 건강권 관련한 연구결과물 출간, ▲시민건강이슈 발간 등 연구 활동과 함께 2011년부터 추진할 사업인 ▲세계 대안의료 탐방과 ▲Mook 발간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0월 23일(토) 연구소 회원을 위한 ‘회원특별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모두를 위한 건강’ 소책자 시리즈 진행사항 - ‘아동 건강권’ 연구모임

전경자 초빙연구위원, 김명희 센터장, 서상희 팀장, 손정인 펠로우가 참여하는 공부모임이 지속 중입니다. 그동안 아동 인권 전반에 대한 세미나와 학술지, 언론매체 등에 나타난 주요 건강권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추석 이후부터는 정책 제안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지역, 학교, 가정에서 아동의 건강권 보장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원고 작성과 세미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 ‘한국사회 금연정책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임

조홍준 회원, 최용준 초빙연구위원, 김명희 센터장, 손정인 펠로우가 참여하는 격주 공부모임이 지속 중입니다. 현재 국제암연구소의 흡연정책 평가지침 보고서 강독을 마쳤고, ‘형평성’이라는 렌즈로 각국의 흡연 정책을 평가한 논문들의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초에는 한국 사례 분석을 위한 본격 자료 정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세계 대안의료 탐방 기획 중

우리 연구소는 2011년부터 매년 2회 대안적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여러 노력과 시도를 직접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1, 2월경 쿠바와 캐나다의 의료제도 탐방으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9월 17일 저녁 7시, 합정역 후마니타스 책다방에서 첫 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돼지저금통 하나씩 마련하세요 ~ ^0^

■ ‘보건의료뉴스읽기모임’ 안내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와 함께 하는 ‘보건의료 뉴스읽기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학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다음 모임은 10월 5일(화)입니다.



■ 지구촌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 2009-2010에 한국의 사례 제출

대안적인 세계건강보고서(World Health Report)

인 지구촌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 2009-2010에 한국의 건강보험체납 탕감운동 사례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심사 중)

지구촌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는 공중보건 전문가, 비정부조직, 시민사회 활동가, 지역사회 단체, 건강 관련 노동자, 학자 등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만든 작품으로 주요 관련 단체는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전지구형평성측정동맹(Global Equity Gauge Alliance), 메드액트(Medact) 등이 있습니다. 지구촌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는 2005-2006 사례를 모아 1차 보고서를, 2007-2008 사례를 모아 2차 보고서를 발행하였고 이번에 한국 사례가 채택이 되면 2009-2010 사례를 모은 3차 보고서가 됩니다.

지구촌건강감시보고서(Global Health Watch)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이란 원칙과 보건의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지지해주는 비정부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한국의 건강보험체납 탕감 운동 사례는 지난 2009년 12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가 2차에 걸쳐 진행한 건강보험체납 탕감 집단 민원 신청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사회가 당면한 건강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알리고,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직접 집단 민원 신청을 통해 건강권 보장을 요구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1차 집단 민원 신청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개인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민중의 건강권과 평등을 보

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기반 보건체계보다 조세 기반 보건의료체계가 나은 선택이라고 제언하였습니다.

살림살이

8월 살림살이

	구분	내역	수입	지출	
수입	회비	8월 회비	4,173,800		
	사업비	희귀난치질환 설문조사비(연구용역)	4,900,000		
	기타수입	디딤돌일자리_4대보험료	135,332		
	후원금	비정기후원금	1,810,096		
지출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1,800,000	
	공과금			265,915	
	교육비	디딤돌 교육비		60,000	
	복리후생비	4대보험(건보,연금,고용,산재)		944,260	
	사업비			1,569,500	
	세금	서울시		62,500	
	소모품비			1,000	
	인건비			4,807,638	
	지급수수료	계좌이체수수료		2500	
	통신비	홈페이지, 전화, 우편발송 등		156,230	
	자료구입비	경향신문 구독		15,000	
		계		11,019,228	9,684,543

후원안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와 함께 해요 ♥

- 우리 연구소는 ‘건강불평등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의 개혁과 대안담론을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제로 강좌를 개발하여 보건의료부문의 종사자와 학생, 의료인 등과 함께 공부하며 인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우리 연구소는 ‘비정부기구’로서 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의 후원 또는 연구비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시민의 후원에 의한 기금을 통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독립 연구기관을 지향합니다.
- 이와 같은 연구소의 뜻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연구 성과물을 함께 나누며, 한국 사회 보건의료 개혁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갑시다.
- 우리 연구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health.re.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안내’를 클릭하면 됩니다.
※ 연구소에 납부하시는 후원금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을 해드립니다.

○ 회원가입 문의

전 화 : 070-8658-1848,

070-8659-1848

팩 스 : 02-581-0339

이메일 : phprc@hanmail.net

○ 찾아오는 길

